

CONTENTS

이제는 패턴과 디자인이다.....	1
가이드	2 13
갤러리	4 15
스조이스	6
스토리	7
코러스	8 9
관목소개	10
관리	11
꽃과 사람들	12 13
그리프트	14
따라잡기	15
따라잡기	16

도시 가로 정원의 새로운 해석-①

이제는 패턴과 디자인이다.



월년생과
한해살이 식물

우리는 봄이 되면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팬지 등 화사한 봄꽃과 마주 한다. 그리고 그뿐만이. 여름의 가로화단 역시 여름초화들의 정적미 연출과 숙근초들의 대형 군락을 맞이한다. 이도 그뿐이다. 여기에 정원이라는 가든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뽀얗게 꺼려진다. 때문에 우리는 가로화단을 정원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단 순하게 꽃을 심어 배치한 화단의 개념이라고 본다.

따라서 계절의 변화나 식물이 가진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말들을 한다. 도로화단이 부산이나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똑같다. 차별이 없다. 뽀얗게 멀 어진다. 아니 격이 없어 보인다. 혹은 우리의 가로화단은 색종지 고리를 입고 춤추는 발레리나와 같다고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은 해외의 가로 정원을 보면서 멋있고 너무 잘 가꿔졌 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와는 너무 수준이 차이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점은 뭔가를 살피는데 애꿎은 아름다운 초 화들만 나무란다. 우리가 나무라는 팬지, 페튜니아 등은 사실 우 리나라식물이 아니다. 이들 초화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든 속은 분화용식물이다. 그런데 유럽의 팬지나 일본의 페튜니아는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초화들이 오려져 우리의 가로화 단을 고급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라 한다.

그러나 이문제의 실체는 패턴과 디자인에 있다. 유럽의 가로 정 원 혹은 공원의 가든을 보면 우리와 차이나는 것이 없다. 정원을 구성하는 식물의 종류나 품종의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여기 에서 가장 핵심은 패턴이다. 그리고 디자인에 있다. 그렇다면 우 리와 다른 선진국들의 정원에서 패턴과 디자인의 차이는 무엇일 까? 그것은 조급함과 획일화 단순화에 있다. 역사성과 사회성에서 도 기인하였지만 생활 속에서 정원의 개념이 없었고 특히 가로 화단이 정원화 되지 못한 점은 전시장에서 찾아야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다. 지역의 체질이나 행사를 위해 대대적인 가로 화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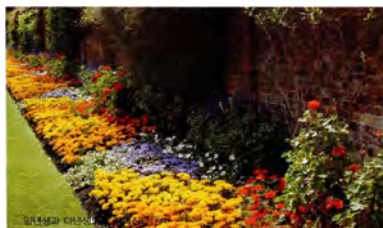
조성하면서 전시장의 성격이 강해지고 구조 가 강해지고 뚜렷한 가시 적 성과 즉, 전시성을 강조하 다보니 원래의 초화들이 가장 적합 했고 그래서 우리만의 독특한 가로화단의 패턴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전시성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정원으로 돌려줄 필요 가 있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는 다음과 같은 합의가 따라야 한다.

첫째, 식물의 품종과 품종의 다양한 적용이 요구 된다. 야생화(다년생)의 가로 화단에 적용은 과거 20년간 보다 엄청난 게 성장했고 면적으로 보자면 일년초화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에 심겨지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화와 같은 단일원 몇 종으로 매우 넓은 구간을 처리하다 보니 일년초로 개화가 되지 못하고 그 적용된 식물이 일시에 꽃을 피우는 기간 동안만 화단이 되고 그 외의 기간은 녹지가 되어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고 또 점차 잡초들에 점령 당해 끝내 버려진 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구간에 100 종 이상의 식물이 혼합식재되고 배치된다면 그것은 봄부터 가을 까지 또, 어떤 테마는 겨울까지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여 시민 들의 마음속에 항상 꽃과 아름다움이 있는 정원이라고 인식되기 만 한다면 정성이런 손길과 관리의 자연히 따라갈 것이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광경을 우리가 100종 이상을 혼합한 식재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둘째는 숙근초와 일년초 그리고 월년초의 적절한 동시 적용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일년초를 대단위로 땅에 심게 되는데 이는 낭 비적 요소와 함께 일년초들을 사지로 모는 것과 같다. 현재 우리 의 가로화단이 외국의 가로정원에 비해 많은 수준으로 차이가 난 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공격적인 낭비적 패턴 때문이다. 우리가 심 는 일년초는 세계적 품목이다. 따라서 일년초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년생과 혹은 월년초와 적절하게 혼합혼성하게 되면 매 번 교체 식재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획일화된 초보적 디 자인이 사라질 것이다. 6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테마

ARI가든 Alpine Rock Island Garden

“
ARI가든은 자연소재인 바람과 물, 바위, 작은 자갈...
그리고 하늘까지 담아내는 자연입니다.”

ARI가든은 우리꽃이 연출하는 암석가든 시스템으로 우리자연의 선과 멋을 새롭게 정원에 녹여낸 공법이다. 과학적인 식물과 암석의 배치는 공간연출의 독립된 섬과 같은 공간을 연출하여 아름다운 자연으로 태어나게 한다. 특히 식물 하나 하나의 특성이 잘 나타나 계절에 따른 고급스러운 변화를 즐길수 있는 정원이다. 우리꽃이 조성하는 ARI가든은 우리의 자연과 같이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른봄 새싹이 주는 감동과 즐거움부터 여름의 푸른 강인함과 가을의 바람까지 표현되고 겨울에도 아름다움이 숨어 있어 연중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한다. 골프장의 시공을 시작으로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관공서, 공원 등 곳곳의 각 현장에 설계, 시공되어 지고 있다. 즉, 우리꽃의 ARI가든은 새로운 공간 연출의 패러다임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까지 ARI가든의 역사를 현장사진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편집해 보았다.



▶ 동아방송대(2008년)



▶ 동양파인텔리C.C(2005년)



▶ 배아크리크C.C(2006년)



▶ 부식물대(2006년)

ARI가든의 주요 시공현장



▶ 서물산 자연학습장(2009년)



▶ 서해벨리C.C(2008년)



▶ 일산킨텍스(2007년)



▶ 파주 삼학산 휴게이 휴재(2007년)

ARI가든의 시공방법



1. 둘레기



2. 지퍼배설



3. 디자인 및 식재



4. 식재 후, 그라인더질기

ARI가든의 사계절



9월



12월



라테나C.C

2005년~2009년



아시안나C.C

2006년



중부C.C

2005년~2010년



왕아주가

Ajuga reptans 'Catlin's Giant'
꿀풀과. 🌞 🌧



초장은 10cm로, 보라색의 꽃이 4~5월 핀다. 우리꽃이 보 유한 아주가 품종만으로 음지를 디자인 할 수 있을 만큼 다 알한다. 활엽수 음지에 효과적이고 보라색의 볼꽃은 화상이다. 약간 의 습기있는 곳을 좋아하며 특히 건조에는 약하다. 비옥한 토양에서 더욱 좋은 잎을 보여준다.

비단너도부추

Armeria maritima 'Splendens'
갯질경이과. 🌞 🌧 🌿



초장은 10cm로 분홍색의 꽃을 4~5월에 피운다. 상록의 잎과 꽃은 암석가든에 최적의 품목이다. 대체로 건조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너무 습기가 많거나 건조하면 장미가 혹은 겨울에 고사할 수 있다. 되도록 건조를 하는 게 유리하며, AR가든의 경우 3~4개의 작은 포기들을 합식한다.

너도얼레지

Dodecatheon pulchellum
앵초과. 🌞 🌧 🌧



초장은 30~40cm이며, 봄철에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수변, 습윤지식물로 산림지나 암석정원에 적합하다. 앵초와 같이 양지나 활엽수림하 적당한 습윤지의 장소에 적합하다. 꽃의 모양이 얼레지와 비슷한 아주 앙증맞은 꽃이다. 여름휴면기를 갖는데 이때 개내야 서늘하게 보관 화분에 심으면 더욱 유리하다. 축축하지만 배수가 잘되는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한다. 봄에 분주하거나 열매를 추화처리 후 파종하여 증식한다.

에키나

Echinacea
국화과. 🌞 🌧 🌧



초장은 60~70cm이며, 고급정원, 도로가, 골짜기 등 어디에 적응해도 좋다. 생육이 강해 반음지에서 양지까지 잘 자란다. 꽃이 저도 아름다운 이삭을 가져 절화용으로도 좋다.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에서의 재배는 매우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혼합식재는 물론 대면적 식재에도 좋다. 꽃이 일차 시들기 시작하면 꽃을 제거하여 2차, 3차 개화를 유도하면 장기간 개화한다.

구름국화 봄비

Erigeron 'Pink jewel'
국화과. 🌞



초장은 10~15cm이며, 봄철단용으로 화색이 다양하고 건조지에서 좋다.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나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키가 작은 볼꽃으로 이른봄 다양한 혼합색의 정원을 연출한다. 화색과 화형이 우리의 정서에 알맞은 야생화이다. 고산성 식물로 내한성은 높으나 토양의 물빠짐이 안좋은 곳에서는 겨울 고사율이 높다.

파니쿰

Panicum dichotomiflorum 'Heavy Metal'
벼과. 🌞



매우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식물로, 잎이 파랑색으로 여름에도 매우 멋스럽다. 잎이 단풍이 들고 겨울이되면 하얀갈색의 줄기가 일품이다. 자화경을 뽐내면서도, 무리를 이루어 식재하면 더욱 좋다.

적엽휴케라

Heuchera sanguinea
범의귀과. 🌞 🌧 🌧



초장은 25~30cm이며, 고급스런 잎이 꽃을 능가하는 품 위가 있다. 분화용으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고급정원의 포인트식물이다.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좋고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많은 고급 변이종은 종자번식이 불가능하여 고가인 개 단점이다. 겨울철 가뭄에 주의하고 특히 물이 차는 지역에서 결빙과 해빙을 반복할 때는 배수에 신경 쓰고 빗집들을 덮어 관리한다.

아스틸베

Astilbe
범의귀과. 🌞 🌧 🌧



60cm이상의 고성종과 20cm내외의 왜성종이 있어 현장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꽃은 촛불형을 이루고 품종에 따라 화색이 흰색, 분홍색, 빨강색 등 다양하다. 꽃이 아름다워 수변의 대표적인 식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수변의 그늘진 곳에 식재하면 효과적이고 다양한 색을 연출할 수 있다. 자생종 노루오줌은 파종을 하여 번식하지만 고급품종은 원 품종의 유지를 위해서 이른봄과 늦가을에 분주를 해주어야 한다.

붉은잎동자꽃

Lychinis arkwrightii 'Vesuvius'
석죽과. 🌞 🌧



6~8월에 꽃이 피며 초장은 30~40cm이고 잎이 적색이다. 무리를 이루어 식재하면 효과적이다. 대체로 양지를 선호하지만 활엽수 반음지에도 강하다. 간혹 여름 건조가 심한 경우 잎이 낙엽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나리, 라이트리스 등과 같은 물을 형성하는 식물과 혼성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후룩스 봄바람

Phlox divericata 'Cloude of perfume'
꽃고비과. 🌞



약 15~20cm 정도 지름이 4월말 경부터 은은한 보라색의 꽃이 피기 시작하여 5월까지 꽃을 피우는데 꽃이 피어있을 때는 향기도 매우 좋은 식물이다. 군식하거나 화기가 다른 여름, 가을 식물과 혼식을 하면 좋다. 트리 개량 후룩스와 혼식하면 한 장소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연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 강건하며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재하면 잘 자란다.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무늬새

Calamagrostis x acutiflora 'Overdem'
벼과. 🌞 🌧



그라스 중 벨리 개화하는 종으로 혼합식재 등에 좋다. 봄에는 무늬새 가을에 마른 잎이 아름답다. 7~8월에 줄기가 말라 가을의 억새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 겨울 까지 아름답다. 너무 건조한 땅을 피하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 하고 양지 혹은 반음지에 좋다. 이른봄 새싹이 나오기 전 지상부를 제거한다.

클레마티스

Clematis
미나리아재비과. 🌞 🌧



매우 다양한 화색, 크기, 성장속도, 향기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대원종의 경우 화색이 다양하며 고급 전원주택등지에 좋다. 소원종의 경우 울타리나 울벽 등이 높은 곳에 이용하는 게 좋으며 이들은 대체로 성장속도가 빠르다. 중간정도의 크기를 가진 종류는 사계상이 많으므로 터널용 등에 유리하다. 물빠짐이 좋은 아주 비옥한 토양에 심어 새로운 품을 연출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속이다.

바위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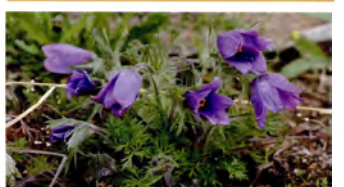
Sempervivum
돌나물과. 🌞 🌧 🌿



상록성이며 극건조지에 매우 강하며, 시간이 갈수록 뽕뽕한 매트를 형성한다. 벽의 틈이나 고산식물원, 암석정원, 분화용으로 알맞다. 종식은 생상이된 화분에 파종을 하거나 초여름에 분지한다. 겨울철 습기에 민감하므로 주의한다.

불가리스 할미꽃

Pulsatilla vulgaris
미나리아재비과. 🌞 🌧



양지의 배수가 매우 좋아야 한다. 특히 뿌리가 굵고 길게 자라므로 암석지 혹은 AR가든 등의 물빠짐이 바로 되는 곳에 알맞다. 생육기에 뿌리에 상처가 나면 쉽게 부패 고사하므로 주의 하고 반드시 심생묘를 이용해야 한다. 종자는 누렇게 익었을 때 알리지 말고 바로 파종해야 한다. 🌧

건조한 곳에도, 약간의 음지에도 잘 자라는 에키나

고급정원, 도로가, 골프장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용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생육이 강건해 반음지에서 양지까지 모두 잘 자라고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에서의 재배는 매우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고급정원, 골프장, 도로가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고 혼합식재시에는 키가 큰 품종(70~90cm)은 뒷줄식물로 이용하면 좋고 키가 작은 품종(50~60cm)은 중간식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합식재시에도 적용 폭이 넓다. 그리고 도로변 등에 군락으로 대면적 식재해도 좋으며 특히 그라스류와 대면적으로 혼성식재하면 더욱 새로운 느낌의 경관을 보여줄 수 있다.

몇 년전부터 국내 조경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져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에키나는 국화모양의 대형의 꽃을 피우며 매우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재이다. 이제는 화색이 다양하고 키도 작은 다양한 품종이 계속 소개되어져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 유망한 소재이다.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6월말경 개화가 시작하여 꽃이 1차 시들기 시작하면 꽃을 제거하여 2차, 3차 개화를 유도하면 장기간 개화한다. 꽃이 크고 매우 화려할 뿐만 아니라 꽃이 저도 출방울같은 이삭이 관상가치가 있어 절화용으로도 사용

있다. 즉 파니쿨, 무늬새, 몰리나아 등 곳곳이 자라는 그라스류와 조화롭게 혼성식재하면 한층 고급스럽고 산뜻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외국에 나가보면 유럽정원에서 에키나와 그라스와의 혼성식재된 아름다운 경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에키나는 화색은 분홍색, 하양색, 노랑색을 띄는 품종이 있으며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품종들은 꽃잎의 형태나 화색이 더욱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라스와 혼성식재 모습

고급종 중의 귀족 휴케라

고급스런 잎이 꽃을 능가하는 품위가 있습니다.



‘휴케라’라는 이름이 아직 낯설은 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매우 고급품종으로 각광받으며 사용되어지고 있는 품종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화려하고 고급스런 잎이 일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만 원활하다면 그 수요의 폭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품종이다.

잎은 적색, 황색, 녹색 등을 띠는데 주로 잎이 적색을 띠는 품종이 많다. 품종에 따라서 잎에 광택이 나는 것도 있고 연한 적색을 띠며 일찍이 꽃이 피는 등 같은

적색계열에서도 형태적으로 또는 잎의 색상적으로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고 그 래서 선택의 폭도 매우 넓다. 잎 자체로 질감이 뛰어나 분화용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고급 정원의 포인트식물로 제격이다. 그리고 행사 등의 디스플레이용으로 모도 좋은데 질감이 좋은 그라스류와 색감을 잘 고려하여 배치하면 꽃보다도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키는 대부분 약 20cm정도 자라고 꽃은 5~6월에 꽃대가 쪽쪽라와 피는데 품종에따라 하양색, 빨강색 등의 꽃을 피운다. 일반적으로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좋고 물빠짐이 바운한 토양을 선호한다. 겨울철 가뭄에 주의해야하고 몇몇 품을 많이 관리하면 좋다. 특히 물이 차는 지역에서는 결빙과 해빙을 반복할 때는 배수에 신경써야한다.

고급 품종 대부분이 종자번식이 불가능하여 분주하여 증식하기 때문에 일시에 대량생산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고급스러운 잎은 그 어떤 아름다운 꽃보다도 귀족적인 품위가 스며나오는 소재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심속의 새로운 분위기 연출 페스티벌 시리즈



페스티벌 스프링 송파사거리



페스티벌 스카이 개화기 시작되는모습



페스티벌 스프링

을 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봄이 쉽게 우리곁에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봄은 소리없이 천천히 오고 있다는 것을 가로변의 노란 개나리에서 여기저기 생긋는 새색 속에서 느낄 수 있다. 봄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특히 가로변의 화단, 주택 정원 등 새롭게 꽃단장을 하는 모습에서 더욱 기대감을 불러 일으킨다. 되돌아 보면 우리의 가로화단은 봄이 시작되면 팬지를 심는 것을 시작으로 메리골드, 사루비아, 임파지엔스, 베고니아 등을 걸쳐 가을에 국화가 거리를 수놓아 왔다. 이런 형형색색의 일년생 초화들은 예쁘기는 하지만 수 심년동안 같은 패턴으로 전국 어딘가를 가는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어 새롭게 느껴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우리 나라 야생화였다. 다년생이어서 매년 교체할 필요없고 우리의 전통을 되살리고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꽃으로서 야생화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별개미취, 원주리, 비비추, 구절초 등등 우리의 야생화가 우리의 거리 화단에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지금도 많이 식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현장의 조경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다. 기대한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야생화가 소재로서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조경이라 함은 보는 이에게 아름다운 소재를 잘 이용하여 미적 즐거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우리 야생화는 일단 화기가 짧고 눈에 확 띄지 못하는 것이 도로변을 장식하기에 한계를 노출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야생화는 식물원이나, 자연학습장에서 교육용으로 더 알맞은 소재일 듯 하다.

그 이후에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다양한 숙근지피식물이다. 특히 우리꽃에서 수 년전부터 골

장을 시작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던 화기가 길고 화려한 소재들이 점차 거리화단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가우라, 개망향복스, 스탈라원추리, 숙근코스모스, 상록잔디매왕이 등등....

지금도 이러한 새로운 숙근지피식물들이 각 지자체 도로변에 계속적으로 식재되고 있다. 그러는 중에 계절별로 단시간에 큰 효과를 보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 이에 맞춰 개발한 품목이 페스티벌시리즈였다. 페스티벌시리즈는 일년생 혼합종으로 계절별로 스프링, 썬머, 스카이가 있는데 메인 사진은 송파대로 도로변에 페스티벌 스프링이 만개되어진 모습이다. 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등 10여종이 혼합되어있고 이른봄 파종하여 5월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하여 6월에 만개한 모습이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화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해당기간에 송파구청으로 페스티벌 스프링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는 것만 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난 뒤에는 다시 명정리를 하여 가을을 위해 페스티벌 스카이를 파종할 수 있다. 사진은 송파대로 도로 화단 스프링 파종지역에 봄에 꽃을 보고 난 뒤 다시 스카이를 파종하여 꽃이 피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백일홍, 베베나, 풍점초, 코스모스 빅스타사계 등 봄과는 다른 꽃들이 서로 어울려 새로운 가을을 수놓는다. 이 외에도 페스티벌시리즈에는 색상별로 연출이 가능한 컬러시리즈를 비롯하여 가정의 소화단에 어울리는 애성종도 있다.

작년에 첫 선을 보였던 페스티벌시리즈는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스프링이 이미 파종되어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고 있고 뒤를 이어 가을에 스카이가 기다리고 있다.

천상의 아름다움

꽃나리



꽃나리는 구근식물로 주로 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서 자생하며 수많은 교배종이 있고 대략 100여종이 있는 대형속 식물이다. 우리나라도 날개하늘나리 등의 특산식물을 비롯한 원산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대부분 내한성이 강하지만 어린 개체는 성장중 냉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재배는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가 좋으며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한다. 대부분 약산성에서 중성토양을 좋아한다. 대부분은 양지를 좋아하지만 반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성장이 활발할 때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겨울에도 습도를 유지해 주는게 좋다.

조경에의 이용



군락 식재

군식을 하는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품종을 가지고 군식하거나 여러 품종을 구역을 나누어서 식재하거나 여러품종을 섞어서 군식하는 방법이 있다.

혼성식재

철쭉사이에 혼성식재하면 봄에 철쭉꽃을 보고 난뒤 6-7월에 꽃대가 철쭉사이로 올라와 꽃을 볼 수 있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쭉사이로 올라올려면 반드시 고성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또한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 휴면기를 갖는 식물사이에 혼성식재를 하면 다시 그 자리에서 여름에 꽃을 볼 수 있어 좋다. 이때는 주변의 식재된 환경에 따라 왜성종, 고성종을 선택해서 식재한다.



품종소개



나리의 분류

나리는 인경, 잎의 모양, 화서, 꽃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4개의 아속으로 분류하였으나, 중간교잡친화성과 관련이 없어, 종자발아방법, 잎의 모양, 구근의 형태, 종자의 크기, 상근의 출현 여부 등 15가지 형질을 고려하여 8군으로 분류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제1군: Asiatic hybrid(아시아계)

주요종으로 날개하늘나리, 망나리, 솔나리, 종나리, 참나리 등이 속하고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주요 자생지이다. 화색 및 화형이 다양하고 초세가 좋으나 향기가 없는 것이 흠이다.

제2군: Martagon hybrid(말나리계)

주요종으로 마타곤, 섬말나리, 말나리, 하늘말나리, 메테오로이데스 등이 있다. 윤생엽이 1~층까지 다양하나 화색이 다양하지 못하고 꽃의 향기가 좋지 않은 것이 흠이다.

제3군: Candidum hybrid

유럽이 원산인 *L.candidum*, *L.testaceum* 등이 교배친으로 만들어진 품종군이다.

제4군: American hybrid

북아메리카가 원산인 *L.bolanderii*, *L.parryi*, *L.canadense*, *L.ocellatum*, *L.philadelphicum* 등을 교배친으로 만들어진 품종군이나 품종수가 적다.

제5군: Longiflorum hybrid(나팔나리 교잡종)

일본이 원산인 나팔나리(*L.longiflorum*)와, 일본, 중국, 대만 등이 원산인 대만나리(*L.formosanum*) 등이 속한다. 일본에서 많은 품종이 육성되었다.

제6군: Aurelian 또는 Trumpet hybrid

중국이 원산인 품종이 많다. 화형은 통상형, 누두형, 별모양 등이 있고 화색은 등황, 황, 분홍색의 품종이 많다. 재배가 용이하고 초장이 길어 절화나 정원용으로 재배되나 향기가 없다.

제7군: Oriental hybrid

일본이 원산인 집박이나리, 산나리, *L.japonicum*, *L.brownii*등으로 육성한 품종군이다. 대부분 향기가 있고 절화, 분화, 정원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제8군: 이상 다른 원예품종

위의 각 군내 교잡종이 아닌 군간교잡에 의해 육성된 원예품종을 포함한다.

나리의 다양한 번식 방법



◀ 주아로 번식하기

준비한 화분 위에 주아를 올려놓는다. 주아 높이의 1/4이상 묻히지 않도록 놓는다. 모래로 덮고 주아의 끝만 살짝 나오도록 한다. 냉상에 두고, 다음 가을에 각각 따로 심는다.



◀ 비늘눈으로 번식하기 1

비늘눈을 떼어내어 그 크기의 두 배정도 깊이로 심는다. 화분 위를 모래로 멀칭한다. 꽃이 피기까지 2~3년 정도 소요된다.

▼ 비늘눈으로 번식하기 2



① 늦가을과 가을에 진강하고 알찬 인편이 있는 구근을 준비한다. 바깥쪽 인편부터 떼어낸다. 마르고 주름지거나 너무 무른 인편은 제외한다. 인편조각을 살균처리한다.

②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모래, 피트를 동일비율로 섞고 그 전체부피의 4배 정도 되는 비닐봉투에 담은 뒤, 인편을 넣는다. 봉투에 공기가 들어가지도록 부풀린뒤, 밀봉한다. 15~25도씨 정도의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싹을 조짐이 보이는 인편은 제거한다.

③ 약 4~14주 후에 작은 구근이 인편 아랫부분에 나타날 때, 배지에서 꺼낸다. 배수가 잘되는 작은 화분에 심고, 5mm정도 모래로 뒷부분을 덮는다. 인편 끝 부분은 바깥쪽에 나오도록 한다. 그늘진 냉상에 둔다.

④ 첫 생장기가 끝날 때 즈음, 작은 비늘눈들을 떼어내어 각 각 하나씩 심는다. 다음 봄에 충분히 커졌으면 구근으로 바로 식재할 수 있다.

경관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지피식물 뿐만 아니라 관목류도 매우 중요한 소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목으로 사용되는 소재가 매우 한정되어있다.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경관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관목소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무늬병꽃나무

병꽃나무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밑에서부터 많은 가지가 나와 큰 포기를 형성하고 생장이 매우 빠른 수종이다. 꽃은 4-5월경 잎 거드랑이쪽에서 갈매기모양으로 모여 피는데 처음에는 황록색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붉은색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특산식물은 분포지가 제한되고 까다로운 수종이 많은데 병꽃나무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관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변이나 산지를 피복시킬 때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만큼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이다. 그리고 병꽃나무도 그 종류가 많은데 붉은꽃을 피우는 붉은 병꽃나무를 비롯해 흰병꽃, 흰털병꽃, 노랑병꽃, 삼색병꽃, 무늬 병꽃나무 등이 있다. 이번엔 소개하고자 하는 수종이 잎의 무늬



가 좋은 무늬병꽃나무이다.

무늬병꽃나무는 잎의 가장자리에 황금색 무늬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 누가 보아도 확연하게 눈에 띈뿐만 아니라 무늬가 아름다워 관상가치 또한 뛰어난 수종이다. 봄에 피는 연한 분홍색의 꽃도 잎의 무늬와 잘 어울리면서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잎의 무늬가 좋아 녹지대 등에 무리지어 군식하면 좋고 차폐용으로 열식하여도 좋다. 특히 공원이나 아파트단지내 곳곳에 관목으로 적용하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숙근지피식물의 경우 꽃도 중요하지만 점차 잎의 질감 또는 색감이 좋은 식물이 인기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꽃은 대부분 한시기만 볼 수 있지만 잎은 3개월동안 계속해서 관상할 수 있으므로 그 가치가 폭넓어 지고 있는 것이다. 관목도 마찬가지로 삼색조팝, 황금조팝 등 잎이 좋은 식물들이 점차로 그 사용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런면에서 뛰어난 무늬를 가지고 있어 관상가치가 뛰어난 무늬병꽃나무는 새로운 관목소재로 매우 가치가 있는 수종이라 할 수 있겠다 🍷



음지조경의 대표종

호스타

무늬종을 활용한 음지조경의 고급화가 실현됩니다.

1. 우리꽃은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2. 수림아래 군락지 조성을 하면 좋습니다.
3. 반음지에서 양지까지 모두 적응을 잘 합니다.
4. 생태연못 조성에 필수 항목입니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 🍷 우리꽃

구입문의 : (031)712-7001,7119



좋은 소재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사후관리이다. 관리를 게을리한다면 그 좋은 경관은 1년이 지나지 않아 쉽게 망가지게 된다. 그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관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단지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매화 한가지씩을 주제로 하여 조경담당자들의 사후관리의 집합이가 되고자 한다.
-편집자주-

비료(Fertilizer)

비료는 토양의 생산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고, 작물을 잘 생장시키기 위하여 토양 또는 식물에 투입하는 영양물질이다.



식물은 간단한 무기물로부터 인류가 요구하는 유기물을 합성해 주고 있는데, 동물이 요구하는 식품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식물의 요구성분도 종류에 따라 다르다. 비료는 식물의 종류와 생육상태, 토양조건 등에 따라 다르나 밀가루로 주는 기비와 옷가루로 주는 추비로 나눌 수 있고 대개 기비의 경우는 유기질비료를, 추비의 경우는 화학비료 즉 무기질 비료를 준다. 식물의 필수 원소는 C, H, O, P, K, N, S, Ca, Mg, Fe 의 10 가지로서 이중 C, H, O는 물, 공기, 이산화탄소에서 얻고, 그 밖의 원소는 모두 토양에서 얻는데, 특히, N, P, K(N, P2O5, K2O)는 식물이 비교적 다량으로 요구하고 토양중에서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서 이것을 비료의 삼대원소라고 한다. 이들 못지 않게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Ca와 토양의 물리, 화학적 또는 미생물적 성질을 개선하여 토양비옥도를 증진시키는 부식질을 더해서 비료의 5대 요소라고 한다. 10가지 필수원소 중에서 Fe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식물에 의한 요구도가 크므로 이들을 다량원소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매우 적은 양이지만 식물생육에 없어서는 안 될 미량필수원소로서 Cu, Z n, M n, B, M o, F e등이 있다.

비료의 성분

1. 질소 : 질소(N)는 식물체의 단백질과 엽록소 및 각종 생장물질의 기본 물질로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주요 비료성분으로, 이것이 결핍되면 잎이 대부분 황화되고 생장이 억제된다. 질소는 특히 잎이 자라는데 많이 이용된다.
2. 인산 : 인산(P2O5)은 탄수화물과 화합물을 형성하여 쉽게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데 이용되며, 생장점 가까이에 있는 관다발 부근의 형성층에 많고, 세포핵에 있는 핵산과 꽃, 과실 및 종자 중의 저장물질로 존재한다. 인산이 결핍되면, 신장이 억제되고, 마디 사이가 짧아진다. 인산을 꽃, 열매 및 종자의 비료라고 하며, 기온이 낮은 가을이나 겨울에 식물의 잎주변이 보라색으로 착색되는 것은 일종의 인산 결핍 증상이다.
3. 칼리 : 칼리(K)는 수화이온으로서 뿌리 끝이나 잎 끝까지 물이 달하는 곳에 널리 분포하며, 특히 줄기의 형성층 부근에 인산과 더불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칼리는 줄기의 비료라 할 수 있을 만큼 줄기를 견고하게 하고, 내한성과 내병충해성을 강하게 하며, 특히 구근식물의 구근발달과 수량증가에 많이 요구된다.
4. 석회 : 석회(Ca)는 식물성분 중에서 대 변제로 많은 물질로 토양과 식물체에 널리 존재하며, 이것은 식물의 세포막을 강건하게 하고 세포 내에 들어가는 해로운 물질을 막아준다. 석회가 결핍되면 식물의 생장점 또는 그 부근의 잎과 눈 및 꽃봉오리가 말라 죽고 생장이 억제된다.

5. 철분 : 철분(Fe)은 엽록소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결핍되면 잎맥부분을 제외한 잎 전체가 황화된다.
6. 마그네슘 : 마그네슘(Mg)도 철과 같이 엽록소 구성성분으로 결핍되면 잎이 황화된다.
7. 망간 : 망간(Mn)은 결핍에 의한 장애보다도 과다 흡수에 의한 장애가 문제 된다.
8. 붕소 : 붕소(B)는 식물에 따라 요구량과 식물 체내의 함량이 다르며 대체로 함유량이 많은 것이 요구량이 많다. 붕소가 결핍되면 잎, 줄기, 꽃 및 과실의 모양이 기형이 되고 생장이 억제되며, 미정상의 무늬가 발생되기도 한다.

비료의 종류

1. 무기질 비료 : 무기질 비료는 흔히 화학비료라고 하며, 비료의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속성비료라고 한다. 무기질비료에는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이 단독적으로 들어있는 것과 이것들이 적당한 비율로 혼합된 복합비료가 있다.
 - 질소질 비료 : 황산암모늄, 요소, 유안, 등
 - 인산질 비료 : 과인산석회, 용성인비, 등
 - 칼리질 비료 : 염화칼륨, 초목회, 등
 - 복합비료 : 18-18-18, 원예용 복합비료, 등
2. 유기질 비료 : 유기질 비료는 식물체를 부숙시킨 퇴비, 깻묵 등 식물성유기질비료와 골분, 가축의 분뇨 등을 부숙시킨 동물성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완효성비료라고 한다.

시비법

1. 비료요구도 : 식물의 생육단계와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비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진다. 질소는 생육초기나 식물이 왕성하게 자랄 때 많이 필요하고, 개화나 결실기에는 인산과 칼리가 보다 더 필요하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비식물과 저비식물로 구분할 수 있다.
2. 시비방법 : 비료는 식물의 생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뿌리의 활동이 정지된 저온기에는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뿌리의 상태가 불량하면 잎의 표면과 뒷면에 액비를 뿌려주는 염면시비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화학비료인 경우에는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액비의 경우에는 지시된 양을 물에 타서 뿌리에 주고 고형비료의 경우에는 뿌리부근의 토양 속에 묻어 주어 관수할 때마다 비료성분이 서서히 공급되도록 한다.. 🍷





첫째, 꽃향기는 스트레스를 딱딱 줄여준다

현대인들의 삶은 매우 복잡 다양하여 열 받음 일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 꽃향기는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춰준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있어 흥미롭다. 실험용 쥐에게 적당히 자극을 줘 스트레스를 받게 한 다음 밀폐용기에 넣어 관찰한 결과, 꽃(나리꽃, 로즈마리허브)과 함께 넣어둔 것은 일정시간 지난 뒤 혈액 내 코티졸 농도가 현저히 낮아졌다(09, 농촌진흥청).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현대인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가정의 테이블, 사무실의 책상이나 회의실, 음식점, 개인 정원이나 화단, 길 가 등 우리 생활공간에 꽃이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둘째, 꽃은 실내공기를 맑게 해 준다

가정이나 사무실, 학교교실 등 밀폐된 실내공간은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공기환경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새집이나 새 차에서 나오는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농도가 높을 경우 눈이 따갑고 피부병이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등 사람의 건강한 생활을 크게 해친다. 화초나 관엽식물은 생존을 위한 광합성 과정에서 실내의 유해한 유기화합물질을 잘 흡수 제거한다. 거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가스는 아레카야자, 자금무 등이 잘 제거하고, 주방의 연소기구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스킨답서스라는 덩굴성식물이 잘 흡수한다. 주로 밤에 쓰이는 침실의 CO2는 선인장이나 팔레놉시스 같은 화초가 잘 제거한다. 물론 자녀들의 공부방에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두면 정서발달은 물론 집중력이 높아진다. 인간이 꽃과 함께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다.

셋째, 집안에서 꽃은 가족간의 화합과 건강한 대화를 유도한다

핸드폰, MP3,...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이 자꾸 개인화되면서 가족이 모이기도 힘들지만 어쩌다 모여도 분위기가 냉랭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식사시간에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때 식탁위에 작은 화분이나 꽃이 하나 놓여있으면 가족들의 스트레스 경감은 물론 꽃을 대화소재로도 써 가족 구성원이라는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면서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 꽃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미소를 짓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마력이 있다. 식탁에 꽃이 있으면 자꾸 식탁에 앉고 싶어진다. 또한 식물에는 음식의 신선도를 상식하게 유지시켜주는 성분들이 있다. 측백나무 잎에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숙성되는 음식의 산화를 억제함으로써 신선도를 유지시켜 준다. 식용꽃으로 쓰이는 종류나 허브식물 중에는 이런 항산화물질을 분비하는 식물이 많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 사람이 꽃과 함께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다.



넷째, 선진국일수록 생활속에 꽃을 가까이 한다

네덜란드, 독일,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꽃은 이제 생활속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꽃 소비의 80% 이상이 가정 소비용이기 때문이다.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웬만한 식당에서도 식탁 위에 생화가 꽂혀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젠 우리도 OECD 11위의 선진국 국민이면 꽃이 선물용으로도 좋지만 가족과 나를 위한 생활용으로 정착할 때가 충분히 되었다.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문화적인 수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꽃 소비액은 그 나라 정서를 평가하는 잣대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삶을 위해서도 꽃은 곁에 있어야 한다.

다섯째, 꽃은 생명감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선물한다

꽃은 송이로 있던 화분에 담겨있든 살아있는 생명체로써 사람과 교감한다. 실제 '식물의 정신세계' 라는 책을 보면 식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한다. 표현 방식이 인간들과 달라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식물사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에는 옥상에 정원이 있는 곳이 경쟁력이 있다. 어린이들이 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식물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일이나 꽃을 보고도 교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자연과 조화로운 삶, 식물과의 공존의식을 높여준다. 꽃은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밈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보여줌으로써 자기만 아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결국 인간도 자연을 구성하는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꽃과 함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

전화: 10-13807-2350

벽면녹화를 뛰어넘은 수직정원!!
원시시스템 녹화공법 **벽화수**

벽화수는 도로부리대, 방음벽, 고가도로의 난간, 교각, 학교의 담장, 건물의 벽체뿐 아니라 건물의 곡면이나 기둥까지 도시의 어떠한 구조물이라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1회 설치로 연중, 매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년생으로의 교체도 가능합니다.

구 · 입 · 문 · 의

자연을 담은 식물들 **우리꽃**
상담전화 : 031712-7001, 7119
Fax : 031712-7991



우리꽃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화훼시장의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창출과 다양한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의 유명 박람회, 가든센터, 식물원 등을 방문, 소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변화와 트렌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도비스가든센터



도비스가든센터(Dobbis Garden Center)는 영국에 위치해 있으며,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된 대중적인 가든센터이다. 1865년부터 원예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왔다고 하니 역사가 140년이 넘는 셈이다. 현재 영국 전역에 25개 가든센터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급 제품도 수만개가 넘는다. 또한 플랜타시아와 같은 관광객용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센터도 영국뿐 아니라 유럽, 미국, 캐나다까지 운영되고 있다.

2009년도 천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 셀러드용 채소와 토마토 등을 집에서 가꾸어 기를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제품을 제공하는 "Grow Your Own" 분야는 지난 한해 10억대의 매출을 올렸는데, 두 달간 삼만 개 이상의 토마토 묘종을 판매하였다.

취급품목은 말그대로 정원에 관련된 모든 것이다. 정원을 만들고, 유지하고, 꾸미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정원에 대해 알고 싶은 책부터 모종삼, 정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바비큐그릴에서 어린이 미끄럼틀, 작은 씨앗에서 애완동물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식물도 일년생초화류에서 나무까지 취급하며 온라인 마켓에 있는 가격별, 종류별 정렬은 물론이고 현재 정원의 토양 상태와 면적,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에 따라 심기 좋은 식물을 선별하여 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특이한 점은 온라인 마켓에서 sustainable living(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대체에너지와 같은 이슈는 아직 정부 홍보단계도 미숙한 시점이지만, 영국에서는 시민들이 먼저 자각하고 깊게 논의되고, 실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영국의 사례들이 방송에서 소개되곤 했지만, 온라인 마켓까지 활성화된 것이 인상깊다.

이 코너에서는 에코홈, 에코가든, FSC제품, 물절약 등의 소코너에서 각각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유기농제품을 소개하고, 중요한 수분매개곤충인 나비와 벌을 유인하는데 좋은 식물들, 도시의 종다양성회복에 일조할 수 있는 자생식물들을 소개한다.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제품이란 국제 비정부 기구인 산림관리협의회에서 산림경영인증제도를 마련하여 환경, 사회, 경제를 배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세계수준에서 인증하여, 그곳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을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산물 유통을 통하여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와는 무관하지만 국내 총생산액 20조 원대에 달하는 목재 전후방 산업에 이 인증제도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종이, 목재, 가구, 수출인쇄, 임산물(버섯·산채·숯) 생산업이나 목자재를 쓰는 생활용품 제조업 전반에 걸쳐 FSC 인증이 없으면 전진국 시장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중요하지만, 생소한 이 인증제품을 가든센터에 도입하여 일반소비자도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저감 프로젝트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푸른도시 가꾸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요즈음, 이렇게 다양한 도시원예에 관한 상품과 어드바이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도시인들의 웰빙에 대한 요구와 색다르고 건강한 취미, 지속가 능한 사회에 대한 모두의 의무, 이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한국형 가든센터를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

묘종, 종자 전문회사 우리꽃은 양질의 종자를 대량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꽃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종자를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4대강도 문제없습니다.

우리꽃은 10만평의 중국 현지생산기지에서 직접 종자를 생산합니다. 야생화종자, 수목종자, 향토·사방종자, 초화종자 등 모든 종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꽃의 혼합종시리즈 "우리법면시리즈, 페스티발시리즈, 우리강독시리즈"는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꽃 따라잡기

이번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경 식물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조경 식물을 조경 식재지에 알맞게 적용하는 법과 우리꽃의 품종을 포함한 12개 조경 식물군의 다양한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8 관목

낙엽성, 상록성 관목 모두 대부분 정원 디자인의 필수적인 요소로 높이 평가된다.

뽕나무는 모양, 향기로온 꽃들, 인상적인 열매, 매력적인 잎 등의 관상적인 특색의 다양성과 연중 존재하며, 장식적인 줄기 등은 정원사들에게 끝없는 러브콜을 받는다. 교목과 마찬가지로 서식지의 범위가 넓어 어떠한 토양과 지형에도 적용가능하다.

▶ 관목이란?

교목성 식물은 하나의 큰 줄기가 있는 것에 비해, 관목은 바닥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뽕어나오는 목본성 식물이다. 대부분은 5-6m 높이로 자라고, 주요 재배용은 좀 더 작다. 그러나 라일락 같은 큰 관목들은 교목처럼 하나의 굵은 줄기로 뽕어서 나무로 여길 수도 있다. 다 자랐을 때의 크기에 따라, 두 가지 모두 속할 수 있다.

▶ 관상적인 특징

초록, 노랑, 빨강, 보라, 은색 또는 회색의 색조를 만든다. 어떤 것들은 특히 단풍이 뛰어나다. 단풍나무는 대단히 많은 품종이 있으며 그 색이 노랑에서 오렌지를 거쳐 붉은색으로 변한다. 관목의 꽃은 그 모양과 크기, 향기 등이 매우 다양하며, 그 색은 모든 색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갈매나무 속의 싸이노디스는 매우 작은 꽃들을 피워 내는 반면에 작약은 커다란 꽃들을 매단다. 많은 관목들이 일 년에 몇 주 정도만 꽃을 피우지만, 히페리쿰이나 포텐틸라와 같은 식물은 몇 달마다 꽃을 피운다. Cornus의 줄기는 밝은 녹색을 띠는 노란색에서 붉은 색으로 바뀐다. 이런 관목들은 겨울에 줄기를 관상하기에 좋다.

▶ 정원이용

많은 관목을 화단이나 일년생 다년생의 혼합 화단 용으로 키운다. 화단에 디자인할 때는, 주제가 있어야 한다. 화단이 선호종의 선택으로 디스플레이할 것인지, 특정 계절 또는 연중 어떤 것을 위주로 할 것인지, 장식적인 모양이나 꽃 등이 있는지. 관목 화단에는 심을 때, 큰 관목들은 서로 다른 계절에 꽃피도록 종류를 다르게 선택한다. 충분한 공간이 각각의 관목에서 제공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색과 꽃의 조화, 모양과 서식지가 대조 되도록 하고 식물을 옮겨 심을 때는 가까이 있는 식물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한다.



▶ 화분에서 키우기

많은 관목들이 화분에서도 잘 자란다. 작은 정원, 테라스, 옥상테라스에 최고이다. 포인트를 주기위해 장식 화분 안에 한 줄을 심거나, 다양함을 위해 여러 가지 배열로 여러 개의 화분들을 이용할 수 있다. 화분 재배는 또한 특정 모양의 산성, 알칼리성이나, 배수가 나쁘거나 기후에 맞지 않아서 실외재배가 어려울 때 좋다. 연약한 식물들은 여름에는 실외에 두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실내로 옮길 수 있다.

▶ 재배

관목들은 알맞은 재배조건만 주어진다면, 수 년 동안 번성한다. 정원토양타입에 상관없이만, 보통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미사질 토양을 선호한다. 땅이 얼어있다면 심는 것을 연기해야 하지만, 가을에서 봄에 심는다. 화분에 자라는 식물은 언제나 심을 수 있지만, 역시 가을 또는 봄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다. 뿌리의 넓이 2,3배의 구멍을 파고, 뿌리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깊이 파서 심는다. 사질토에서는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목 주변을 낮추고, 반대로 점토질 토양에서는 관목 주변을 살짝 높여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

어린 나무는 뿌리가 잘 정착할 때까지 주기적인 물주기가 필요하며, 새로 심은 경우, 차갑고 건조한 바람에서 잘 보호해야 한다.

비료는 이른 봄에 시비하고, 멀치는 나무 치이나 정원용퇴비로 봄 또는 가을에 두껍게 한다.

▶ 울타리와 스크린

정원의 구획을 나누거나 울타리 등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보통 이런 기능을 가진 식물들은 강건하고, 밀도가 높으며, 성장형태가 꽃꽂이 직립하는 것이 좋다. 장미와 같이 가시가 있고 잎에도 가시가 난 식물이나, 밀도 높게 생장하는 종류는 풀기 힘든 울타리를 만드는데 제격이다. 왜성종들은 낮은 가장자리를 만드는데 좋다. 라벤더와 로즈마리는 향기있는 낮은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

